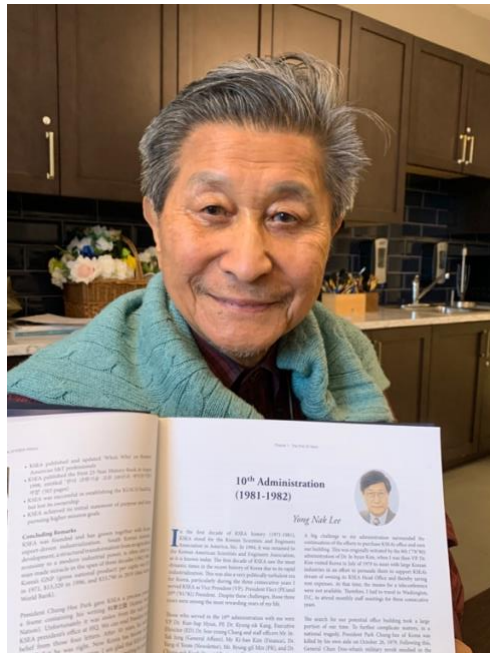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10 대 회장 10th President of KSEA

이용락 박사님을 추모하며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전회장 일동 Former Presidents of KSEA

한홍택 Tom Hahn 28th President of KSEA



전회장님께,

제 10 대 회장을 하시고 그동안 KSEA 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신 이용락 박사님께서 5 월 11 일 월요일 저녁 8 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일정

천국환송예배 (Celebration of Life Service)

일시: 5 월 19 일(화) 오후 5 시

장소: Matz Funeral home, 410 E Rand Rd Mt Prospect IL

발인예배 (Funeral Service)

일시: 5 월 20 일(수) 오전 10 시

장소: Matz Funeral home, 410 E Rand Rd Mt Prospect IL

하관예배 (Burial services)

일시: 5 월 20 일(수) 오전 11 시경

장소: All saints Cemetery, 700 N River Rd Des Plaines IL

연락처

유가족: 847-414-0667

한국장의사: 773-720-100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om Hahn (한홍택) 310 760 1891

모국 사랑과 나눔의 거목, 이용락 박사님을 기리며

모국 사랑과 나눔의 거목, 이용락 박사님을 기리며,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의 큰 스승이자 대선배님이셨던 이용락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박사님과 저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사님께서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제 10대 회장으로 헌신하고 계셨고, 저는 세인트루이스 지부장으로 박사님의 열정적인 리더십을 처음 보았습니다. 서울공대 기계과 대선배님이신 박사님은 언제나 저희 후배들에게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자, 동시에 따뜻한 버팀목이셨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그 높은 위치에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며 후배들을 자상하게 챙겨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겸손한 성품 덕분에 저희 후배들은 박사님 곁에서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28대 회장으로 있을 때 지나간 회장 선거 관계로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박사님께서는 대선배로서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끝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의 처사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우리가 더욱 깊게 연결된 것은 제가 은퇴한 후인 2015년, 중소기업 위원회(SME Committee)를 함께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주저되어 망설였습니다. 박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진정성에 이끌려 결국 저도 그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모국에 대한 사랑은 감히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 쏟으신 열정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앞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1만 달러라는 거액을 선뜻 기부하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2021년을 들어서며 제가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관여하게 된 것, 그 안에서 기업가 네트워크 모임을 시작한 것도 박사님의 열정을 전해 받은 덕택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생전에 큰 공적을 세우시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의 성과를 앞세워 주시던 그 넓은 도량과 자상하신 미소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박사님은 떠나셨지만, 함께 위원회를 준비하며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대화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들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시던 모국 기업들의
번영과 과학기술인들의 화합은 이제 남겨진 저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사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6 년 5 월

후배 한홍택 올림

박찬모 Chan-Mo Park 13th President of KSEA



삼가 소천하신 이용락 박사님의 영면을 애도하오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찬모 올림

고광국 Kwang Kuk Koh 17th President of KSEA



It is an extremely sad news to our KSEA community.

As an entrepreneur college I had some connections with Dr. Lee and we had seen him at KSEA-UKC a couple of times when Dr. Lee was over 90 years old. We, all miss him greatly.

Mrs. Lee, wishing you strength and comfort through this difficult time.

Thanks,
Kwang and Kook-Wha

서문원 Moon Won Suh 23rd President of KSEA



전회장님 이용락 박사님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Mrs. Lee 와 모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문원 부부 드림

안세영 Saeyoung Ahn 25th President of KSEA



아~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우리곁에 더 오래 함께 계셔 줄것으로 믿었습니다.

사모님과 가족 모든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며 주님의 품안에서 위로 받으시옵기 기도합니다.

이용락 전회장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반갑게 마지할 날을 고대합니다.

25 대 전회장
안세영 드림

은아씨,

화환준비하여 주시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김영기교수님이 본부에 있는 여러 Eulogy sample 들 참고하시어 하나 만들어서 ... 전회장+과협 이름으로 보내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려요...

25 대 안세영 드림

정 호 Howard Ho Chung 29th President of KSEA



전 회장님께,

오늘 이용낙 박사님 사모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저도 화요일(5월 19일)에 있을 이용낙 박사 천국환송예배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저는 1974년 5월 Boston에서 Chicago로 온 이후, 지난 52년의 긴 세월 동안 이용낙 박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학문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 따뜻한 인품, 그리고 후배들을 아끼시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천국환송예배가 박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추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정 호 드림

(KSEA 29th President)

정찬일 Chan Il Chung 31st President of KSEA



이용락회장 유가족께-

이박사님은 KSEA 를 위해, 여러해동안 여러가지로 헌신 하셨습니다. 저와도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14 일 서울에서
31 대 회장 정찬일 올림

강성권 Sung-Kwon Kang 35th President of KSEA



이용락 박사님의 별세를 슬퍼합니다.

지난 50 여년간 재미과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고, 늘 후배들을 격려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년전 KSEA Senior Forum 동영상을 보면서, 박사님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8hU6gIev-A>

사모님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권 드림
(KSEA 35th President)

김영기 박사님,

다음주 이용락박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립니다.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기에 섭섭하고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아래 이용락박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첨부합니다.
사모님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권 드림.

이용낙 박사님을 추모하며 (35 대 회장 강성권)

평생 KSEA 와 함께 걸어오신 삶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용낙 박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큰 슬픔과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사님께서 남기신 긴 삶의 발자취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이용낙 박사님은 KSEA(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제 10 대 회장님으로, 미국 내 한인 과학기술인 사회의 초창기를 이끌어 오신 대표적인 선배 세대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낮은 미국 땅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시면서도, 후배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1981 년 회장 재임 시절에는 오늘날 KSEA 의 중요한 자산이 된 메릴랜드 록빌의 KSEA 회관 마련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협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박사님의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이용낙 박사님은 단지 훌륭한 지도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은 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랜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박사님과 사모님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고, 병원과 재활시설을 오가시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사님은 여전히 KSEA 이야기, 후배들 이야기, UKC 행사 이야기, 그리고 과기협회 역사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박사님과 사모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두 분은 가능한 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기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가시려 했던 모습 속에서 저는 박사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삶의 마지막 자리에도 믿음과 감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작년 4 월 **KSEA Senior Forum** 에서는 박사님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특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함께 모여 박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더욱 귀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KSEA 와 함께 평생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박사님께 KSEA 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고, 함께 꿈을 나누고 후배들을 키워온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의 KSEA 가 있기까지는 이용낙 박사님과 같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고,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박사님을 곁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사모님의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낙 박사님, 이제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조용한 헌신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강욱 Kang-Wook Lee 37th President of KSEA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사모님, 아드님들 및 손주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용락 박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UKC 2008 준비하며 Energy Symposium Chair 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훌륭한 심포지움을 준비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후원사인 KETEP 도 높게 평가하여 그 후의 UKC 에도 계속 후원하였습니다.

2011 년 1 월 mid-term 평의원 회의 때 “나는 항상 59 세라고 생각하며 협회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협회를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박사님이 회장일 때인 1981 년에 찍은 Rockville office 개관식 사진이 history website 에
올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그 때 일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KSEA 에 두루두루 공헌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기억날 것입니다.

Best Regards,
Kang-Wook Lee

김재훈 Jae Hoon Kim 39th President of KSEA



한홍택 박사님, 정호 박사님, 그리고 전 회장님,

WDC 에 출장과 회의 참석중에 한 박사님의 이용락 박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첫 소식과 이어진 전 회장님들의 조문 메시지로 전화기가 불이나게 진동으로 온 몸에 전달했습니다.

KSEA 일을 하면서 이용락 박사님과는 참으로 인연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 마다 조언을 구하며 상의를 드렸던 원로 선배님이셨습니다. 한홍택 박사님의 부탁으로 Fair Election Committee 에서 일할때부터 이 박사님의 매사에 합리적이고 인자하신 성품을 보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당시 KSEA 상황을 무사히 해결하는데 이 박사님과 당시 회장이셨던 한 박사님의 노력이 컸음을 잘 압니다.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SEA 내에서 원로 회장님으로, advisor 로, mentor 로 수많은 일에 조언과 도움을 주시면서 KSEA 발전에 공헌 하셨습니다. KSEA History Committee 의 초대 Chair 를 흔쾌히 맡아주시며, 강성권 박사님과 함께 KHC 의 초석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시카고에 출장을 갈때 전화로 인사드리면 정호박사님과 함께 이 박사님과 사모님까지 일부러 시내로 오셔서 점심식사에 초대해주시고 이 후배를 아껴주셨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참으로 많은 인연을 필설로는 다 기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각설하고,

삼가 고인이 되신 이용락 박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덧붙여,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 유가족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싶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용락 박사님을 가리며,
후학 김재훈 올림

이호신 David (Hosin) Lee 40th President of KSEA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소식입니다. 저희 40대에서 Distinguished Membership Award 를 받으셔서 금메달을 전달해드렸던 기억이나고요 시카고 YG 모임등에서도 뵈고 뵈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빕니다.

이호신드림.

이명종 Myung Lee 42nd President of KSEA



이용락박사님,

이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작년인가에도 zoom 으로 SMEC 미팅에서 뵈 정도로 KSEA 에 열정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명종을림

김영수 Youngsoo Richard Kim 44th President of KSEA



저희한테 마치 큰 형님같으셨던 이용락 박사님, 이 땅에서주님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이제 주님 곁에서 평안히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남아 있는 유가족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유재훈 Jaehoon Yu 45th President of KSEA



아, 정말 너무 슬프고, 갑작스런 이용락박사님의 영면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포용하는 목소리로 감싸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한국이 큰 별을 하나 잃었습니다.
이용락 박사님, 편히 쉬십시오.

유 재훈 드림

서은숙 Eun-Suk Seo 46th President of KSEA



슬픈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용락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KSEA 를 통해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UKC 2017 참석하셨던 이용락 박사님 모습을 담은 사진(왼쪽 뒷줄)을 공유합니다. 직접 조문을 가진 못하나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With deepest condolences,
Eun-Suk Seo
46th President of KSEA



김영기 Young-Kee Kim 51st President of KSEA



참 슬픈 소식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용락 박사님과 같이 일한 적이 없었지만, 2022년에 제가 찾아 뵈었을때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5월 19일)에 있을 천국환송예배(Celebration of Life Service)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가족분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영기 드림

사진을 찾아보니, 이용락 전회장님과 사모님을 뵈러 갔을때가 2023년 1월 17일이었네요. KSEA 50주년 기념 책자도 전달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몇 장 첨부합니다.

김영기 드림

